

2 뉴스

국제대학
동아리에
무슨 일이

김경민 기자 elude12@khu.ac.kr

【국제】국제대학 동아리등록위원회(동등위)의 동아리 재등록 심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동등위의 심의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국제대학 동등위는 지난 10일 동아리 재등록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국제대학 동아리 총 12개 중 두 개의 동아리는 활동 증거 불충분 및 제출 서류 미흡 등의 이유로, 4개의 동아리는 심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재등록이 부결됐다. 이후 23일 재등록이 부결된 한 동아리가 시정 절차를 거쳐 재등록돼 25일 기준 총 재등록이 결정된 동아리는 전체의 절반 수준인 7개다.

하지만 동등위의 재등록 심의 결과를 두고 국제대학 내에선 ‘심사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동등위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심의위원 전원의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동등위는 1차 동아리 재등록 서류와 동등위 회의록, 1·2차 서류 채점표를 공개했으나, 정작 재등록 의결의 근거로 작용한 2차 동아리 재등록 서류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을 가중시켰다. 앞서 동등위는 지난 4월 1차 동등위 회의를 열었으나 모든 동아리의 재등록이 부결되자 이틀간의 2차 서류제출 기간을 두고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이후, 10월 2



국제대학 학생회는 동아리 문제가 잘 마무리됐다고 추가적인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사진=대학주보DB)

차 동등위 회의를 통해 최종적인 동아리 재등록 여부를 의결했다.

동등위의 심의가 공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심의 대상인 동아리의 대표자가 재등록 심의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제대학 학생회칙에 따르면 국제대학 동아리 및 자치기구의 장(長) 중 3인은 단과대학 운영위원의 자격으로 동등위 심의에 참여한다. 동아리 대표자가 재등록 심의에 참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제대학 학생회가 심의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학생회가 스스로 논란의 불씨를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제대학 동아리 ‘혜암’의 부원 김민준(국제학 2017) 씨는 “학생회를 선출하며 동등위에 대한 권한 역시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동등

위의 취지나 존재에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동아리 장의 의결에 참여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가 익명으로 진행된 것은 동등위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어 “동등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이에 대한 국제대학 학생회 차원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국제대 모 동아리의 부원 A씨는 “절차상의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누구인지도 모를 익명의 심의 위원들이 공식 동아리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이어 “코로나로 인해 모든 동아리의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동등위가 서류로만 재등록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것이 구

색만 맞추려는 의도로 보이기도 한다”고 밝혔다.

우리 신문은 동등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제대학 학생회의 입장을 듣고자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국제대학 학생회측은 “동등위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처음이다 보니 미숙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이와 관련해 많은 학우들과 소통하기 위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모든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학생회측은 이어 “추가적인 우려가 발생하지 않았고 단과대 내에서도 원만하게 잘 마무리가 되었다”며 “따라서 추가적으로 내용을 공식 입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아리 재등록이 부결된 동아리는 공식 동아리의 지위를 잃고 더 이상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개인적인 동아리 활동은 가능하다.

한의대
교육과정
개편한다

천민주 기자 cheonminju03@khu.ac.kr

【서울】한의과대학(한의대)이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한다. 이번 개편은 2021년 1학기에 시범 적용을 시작해 오는 2024학년도부터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그동안의 교육과정 개편이 교수진 중심이었다면 이번 개편에서는 학생이 중심이 된다. 한의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전임의와 전공의를 늘려 인적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물적 인프라 역시 SPACE 21 내에 한의임상술기센터를 갖춰 보충할 예정이다.

역량 강화를 위해 실용성 중심의 교육도 확대된다. 특히 ▲OSCE ▲치료 관련 술기(침술, 구술 등) ▲진단 관련 술기(맥진, 설진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실습시간 역시 50주로 늘릴 계획이다.

한의대는 기초한의학을 기초의학과 연계하는 교육을 실현해 학생 역량을 최대한 배양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2022년 진행될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를 위해서 우리학교는 개편 진행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전반적인 교육과정 개편의 추진 기조에 대해 이의주 한의학교육실장은 “소통과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본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학주보 70기 수습기자 모집

- 모집 대상

우리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중 3학기 이상 활동 가능한 자
- 전형 일정

서류 전형 (지원서 작성) : 2월 15일 월요일 ~ 3월 15일 월요일
면접 일시 : 3월 18일(ZOOM 비대면 면접)
합격자 통보 : 개별 통보
- 모집분야

취재기자
그래픽기자 (카드뉴스 제작 유경험자에 한해 모집)
- 전형 방법

1차 : 서류전형 (입사 지원서 및 필기시험 작성 후 제출)
2차 : 개별 면접 진행
- 접수방법

홈페이지(media.khu.ac.kr/khunews) 팝업창에서 입사 지원서
다운받아 작성 후 업로드 제출

- 주요 업무

학내 뉴스 아이템 발제 및 취재
온라인, 지면 기사 작성
인포그래픽 및 카드뉴스 제작
학기당 5~6주의 대면 출근
- 활동 혜택

활동비 지급
현직 언론인 특강
활동 증명서 발급

기타 궁금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주보 페이스북 페이지 메시지
- 대학주보 인스타그램 DM (khunews_jubo)
- 연락처 : 010-8522-6913 편집장 김가연, 연락은 문자로 부탁드립니다.
- 전 화 : 02-961-0095 (서울캠퍼스 편집실), 031-201-3232 (국제캠퍼스 편집실)

